



정목 스님이 말하는 '원효의 엄불선' <4>



종교적 신념과 깨달음

신라시대 승가는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지도층은 참으로 중중존(衆中尊)이었습니다. 몇몇 종파가 형성되었지만 선지식은 조사로 추앙받을 뿐, 오늘날 처럼 다투어 추종하는 무리를 짓거나 종정의 자리에 올라 권위를 내세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승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깨달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날과 같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주장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깨달아야 할 법에 대하여 사성제, 팔정도, 연기, 공, 무아, 불성 등을 말한 것입니다.

원효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뜻이 같을지라도 말이 다르면 범부는 헛갈려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원효는 믿음

습수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응당 명령되게 의혹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원효는 믿음에 대하여 앙신(仰信), 곧 '우러러 믿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을 우러러 생각하며 한결같이 었드려 믿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신념으로써 부처의 세계에 나아갈 수 있고 깨달음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에 대하여 실체가 있다 혹은 없다 헤아리지 말고 '일체 경계는 일심(一心)인 지혜'를 우러러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심은 믿음의 대상인 동시에 성취해야 할 법입니다. 여래의 분원력에 힘입는 청명이나, 자력의 관행(觀行)이나, 혹은 정각이라 말하든지, 경성이라 말

부처님의 지혜 우러러 믿으면 자연스럽게 깨달음의 문 열려

과 깨달음의 대상을 '일체 경계는 일심인 지혜'를 높이 세워야 모든 주장을 포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붓을 들어 글을 썼습니다.

"만약 뜻(德)을 얻지 못하고 말을 따라서 글 뜻(義)을 취하면 유변(有邊)이거나 무변(無邊)이거나 모두 허물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변이 아닌 문에 의지한다면 무변의 뜻(義)을 거지로 설할 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의혹을 해결하지 못하면 비록 저 국토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번두리 땅(邊地)에 있게 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비록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지혜의 경계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능히 스스로 결손하고,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지만 부처님을 우러러 생각하며 한결같이 었드려 믿으면(仰惟 如來一向伏信), 이와 같은 등의 사람은 그 행과 품계에 따라 저 국토에 왕생하고 번지에 머물지 않습니다. 번지에 태어나는 사람은 특별한 한 부류로서 구품에

하든지 모두가 종교적 신념을 일으키고 일심의 근원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방편입니다. 일심의 근원에 들어가야만 진정한 동체대비심(同體大悲心)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효의 종교적 신념이요, 불교관입니다. <관무량수경> 제8 상관(像觀)에서 '시심작불 시심시불(是心作佛 是心是佛)'이라 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자성 청정심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번뇌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신심입니다. 신심이 불성이요, 믿음이 부처입니다. 이와 같이 알고 부처님의 지혜를 우러러 믿으면 자연히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은 문개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심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우러러 믿는 것이 깨달음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때때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산 정도원 원장> (cafe.daum.net/amitapa)

'청정도론' 완역 기념 각목 스님 특강 '놓치고 있는 수행의 핵심' 주요내용



수행과정 뻔 '돈오지상주의' 경계하라

과정 도외시한 돈오 지상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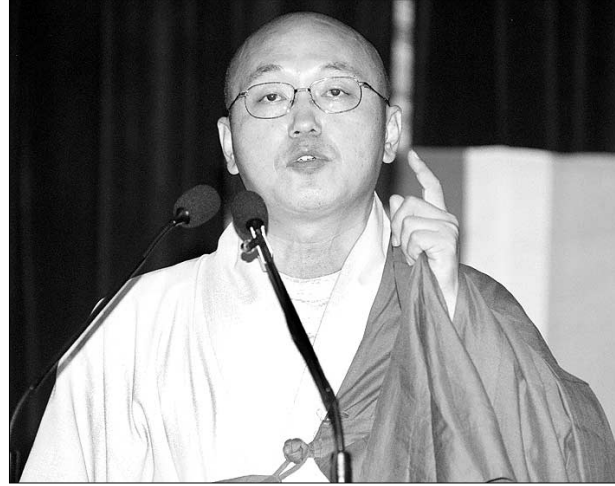
수행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문제는 과정이나 방법은 알려지지 않고 오직 깨달으면 그뿐이라는 단편적인 사고에 빠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돈오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향한 수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일자무식운동'을 강조하는 것은 불교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지 않고도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오해를 낳기 쉽다. 마치 '즉심시불'을 '집신세불'로 잘못 알아듣고 수행해서 깨달았다는 사람처럼.

깨달음 단계 세우고 착각에

많은 수행자들이 깨달음의 단계를 건립하여 그것을 굳게 움켜쥐고 있다. 대아, 진아, 본성, 자성, 주인공, 심지어 여래장이나 불성을 세워 그것과 하나 되는 것으로 수행을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깨달음을 착각이라 부른다. 초기불교에서는 '나'와 '내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자가 무명과 갈애의 근본이기에 해체를 강조한다. 무엇이든 깨달음의 단계를 세우는 한 의도적, 한두가지 팔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깨닫겠다는 집착마저 놓아야

깨달음은 갈애를 버릴 때 실현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깨달음에 대한 엄청난 갈애를



애정어린 비판의 시각으로 일부의 잘못된 수행풍토를 지적하는 각목 스님.

키우고 있다. 수행자가 특수한 체험을 하고 이를 깨달음으로 착각해서 여기에 안주한다면 얘기를 놓고 싶어서 '가상인신'한 여성과 다름없다. 진정한 출가자는 그 어떤 집착도 놓고 어떠한 단계도 움켜쥐거나 세우지 않는다.

'무사선(無事禪)'에 안주해 있어

돈오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일부 수행자는 어떤 뒤에도 불필요하다는 무사선(無事禪)에 빠져있다. 본래부처요, 본무생사요 본자청정이요 본무번뇌이기에 아무것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무명 속에서 탐진치에 휘둘리는 중생의 실상을 무시하고 '지혜는 자성에 본래 갖춰져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은 빈곤

의 악순환과 다름없다. 사성제를 철권하여 부처가 되려면 교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좌선은 만능이 아니다

간혹선은 망상 속에서 좌선을 하는 수행을 '혹산귀공에 앉아 있다'고 배격하고 일상선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의 간혹선은 오히려 있는데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서 깨달음과 적정체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성제와 팔정도, 삼학을

수행의 핵심은 8정도의 '정념'

8정도 가운데서 본격적인 수행법과 관련된 것은 정념(sammaasati, 바른 마음챙김)이다. <대념처경>은 몸(身) 느낌(受) 마음(心) 심리현상(法)에 마음챙기는 공부를 설한다. <대념처경>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해체'이다. 해체하지 못하면 본래청정, 본무생사, 대아, 진아, 여래장, 불성, 마음이라는 무순 실체가 있는 줄 착각하게 된다. 해체해서 볼 때 괴로움의 근본원인인 무명과 갈애가 소멸된다. 해체해서 보기 위해서는 단속하고 집중하고

통찰하는 훈련을 해야한다.

해체해서 보는 게 위빠사나

오문의 가함을 나라고 취착하는 한 인생은 고이다. 해체해서(वि-) 보는 것(passana)이 바로 위빠사나(통찰, 관찰)이며 반야이다. 멍치면 속고 해체하면 깨달는다. 우리가 이름 짓고 개념지어 대상을 파악하고 아는 한 그것은 나를 속박한다. 해체의 출발은 마음챙김이요 청경을 통해서 문단속을 하고 삼매와 통찰지를 구축하게 된다. <청정도론>은 이러한 계(육근의 단속), 정(사마디, 집중), 혜(법을 통찰) 삼학을 설하고 있으며 해체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gjkim@buddhapia.com



각목 스님의 열강을 경청하는 불자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Bamseungil Sabata Center' (밝은길 사바타 센터)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QR code.

Advertisement for 'Gongseongseon 6th 2-day Hangeo Lecture' (공생선원 6월2일 하안거 입제) with details on dates, times, and location.

Advertisement for 'Boriseunwon Silrandana Sunim Chongchokgyang' (보리수선원 실라난다 스님 초청특강) with details on the speaker and topics.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Advertisement for 'Urijeol Jeonggi-do' (우리절 정기기도) with details on various prayer services and their times.

Large advertisement for 'Urijeol Chondojae' (우리절 천도재) featuring a lotus flower image and details on the 'Chondojae' (천도재) service, including dates, times, and location.